

奎章閣再生本 〈坤輿萬國全圖〉(2010)의 原本은 옛 奉先寺藏本이다

鄭基俊*

-
- | | |
|-----------------------------|---|
| 1. 〈坤輿萬國全圖〉 | 4. ‘奎章閣本 〈坤輿萬國全圖〉의 原本이 奉先寺本이라는 證據’ 追跡過程 |
| 2. 肅宗版 〈坤輿萬國全圖〉 | 1) 奉先寺 訪問 |
| 1) 奎章閣의 〈坤輿萬國全圖〉 | 2)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의 〈坤輿萬國全圖〉項의 내용 |
| 2) 서울대학교博物館의 〈坤輿萬國全圖〉 | 3) 1932년 〈朝鮮古地圖展觀目錄〉 |
| 3) 또 하나의 肅宗模寫本: 일본大阪 北村芳郎藏本 | 5. 確認 및 整理 |
| 3. 奎章閣本の 原本이 奉先寺本일지 모른다는 疑心 | |
-

초록: 이는, 한 장의 寫眞에서 8幅의 屏風으로 再生된 奎章閣本 〈坤輿萬國全圖〉의 原本을 追跡하여 確認하기까지의 過程을 記錄한 글이다. 이 追跡過程을 통하여, 奎章閣再生本 〈坤輿萬國全圖〉의 原本이 奉先寺本이라는, “理性的 의심의 여지가 없는 證據”(evidence beyond reasonable doubt)가 얻어졌다고 본다.

핵심어: 肅宗版 〈坤輿萬國全圖〉, 奎章閣, 奉先寺, 1932년 〈朝鮮古地圖展觀目錄〉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1. 〈坤輿萬國全圖〉

내가 마테오 리치 즉 利瑪竇의 〈坤輿萬國全圖〉라는 世界地圖가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 그러나 그것의 내용을 가까이서 보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리마두가 1602년에 만든, 6폭의 屏風으로 된 이 大型의 世界地圖에는 천 개가 넘는 地名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 여러 가지 天文學的 地理學의 人文學的 解說이 곁들여 있다.

大型의 古地圖는 대개 그 지도를 설명하는 圖錄에서 대강의 輪廓을 알 수 있을 뿐이다. 記事의 判讀은 엄두를 못 낸다. 내가 〈坤輿萬國全圖〉의 判讀을 시도하게 된 것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宋榮培교수를 통해서다. 그를 통해서 존재를 알게 된 朱維錚의 〈利瑪竇中文著譯集〉(2001, 상해)에는 이 지도를 18부분으로 나누어 縮刷한 사본이 들어있는데, 어렵사리 判讀을 시도해 볼 수 있는 解像度를 가지고 있다.

2. 肅宗版 〈坤輿萬國全圖〉

1) 奎章閣의 〈坤輿萬國全圖〉

나는 〈坤輿萬國全圖〉를 本格的으로 判讀해 보고싶은 생각으로, 그 實物에 접근해 볼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서울대학교에도 한 부가 所藏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奎章閣을 찾았다. 奎章閣의 圖書를 檢索하여보니 과연 〈坤輿萬國全圖〉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A4용지 두 장을 가로로 길게 늘인 모양(정확하게는 29cm x 62cm)의 오래된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러나 貴重品 대접을 받고 있었다. 6폭이 아니라 8폭의 屏風인 〈坤輿萬國全圖〉를 찍은 이 사진을 擴大鏡으로 자세히 보니, 그 병풍은 肅宗戊子秋九月(1708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模寫本이었다. 당시 領議政인 崔錫鼎의 跋文도 붙어 있었다. 그러나 사진의 글자가 작아서 그 사진을 判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 사진의 實物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奎章閣에는 실물이 없고, 서울대학교博物館에 있을 것이라는 답이었다.

2) 서울대학교博物館의 〈坤輿萬國全圖〉

서울대학교博物館所藏 〈坤輿萬國全圖〉의 실물은 이미 ‘寶物’로 지적된 물건으로 접근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어렵사리 높은 해상도의 寫本을 얻어 檢討해 보니, 奎章閣의 〈坤輿萬國全圖〉의 사진과 같은 물건이 아니었다. 역시 肅宗 때 만든 模寫本이지만, 奎章閣本 보다 한 달 앞선 戊子秋八月(1708년 8월)에 만든 것으로 되어 있었다. 똑같은 최석정의 발문이 붙어 있고, 8폭으로 되어 있었지만 形態와 配列이 달랐다. 규장각본은 리마두의 長文의 總序와 〈論地球比九重天之星遠且大幾何〉가 첫 폭이고, 최석정의 跋文이 마지막 폭인데 反하여, 박물관본은 總序만 첫 폭이고, 〈論地球比九重天之星遠且大幾何〉와 최석정의 跋文이 마지막 폭이다. 박물관본은 훼손도 심했다. 어쨌든 이것이 규장각 사진의 실물이 아님은 명백하였다.

3) 또 하나의 肅宗模寫本: 일본大阪 北村芳郎藏本

나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林宗台 교수(과학사 전공)를 통해서 黃時鑒/龔纓旻의 〈利瑪竇世界地圖研究〉(2004, 상해)라는 훌륭한 研究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그야말로, 리마두 세계지도의 綜合研究書로서, 여러 版本의 現存狀況도 세계적으로 조사하여 설명해주고 있었다. 거기에는 서울대학교박물관본도 잘 소개되어 있었다. 그리고 숙종 모사본으로 1951년 戰爭으로 燒失된 奉先寺本과 일본에 현존하는 또 하나의 판본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규장각본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남아있는 것이 사진 한 장뿐이니 당연했다.

일본에 현존하는 또 하나의 숙종 모사본이란, 大阪의 北村芳郎藏本으로 이는 규장각 사진본과 같이 1708년 9월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우선 폭 수가 10폭이다. 위의 研究書에 실린 사진을 보면 첫 폭과 마지막 폭은 규장각본과 똑같다. 그러나 地圖 本體를 8폭으로 늘였기 때문에 전체가 10폭으로 된 것이었다.

3. 奎章閣本の 原本이 奉先寺本일지 모른다는 疑心

나는 奎章閣寫眞本을 여러 번에 걸쳐서 자세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검토하면 할수록 그 品質의 優秀性에 壓倒되었다. 그 품질이란, 寫眞으로서의 품질과, 地圖 작품으로서의 품질 모두에 해당한다. 사진으로서의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현재의 電子技術로 精密스캔한다면, 모든 글자가 判讀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규장각에 建議하여 이 일을 實現하였다. 결과는 期待이상이었다. 이제는 이를 8幅屏風으로 再生해도 불만한 물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建議 역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역시 期待이상이었다. 이 再生本은 현재 규장각의 주요 一般展示物이 되고 있으며, ‘奎章閣本〈坤輿萬國全圖〉’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물건이 되었다.

그 再生本을 ‘奎章閣本〈坤輿萬國全圖〉’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는 것은 형식과 내용 모두에 해당한다. 그 지도의 내용과 제작에 쏟은 精誠을 보면, 博物館本과는 작품으로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優秀하다. 나는 이 규장각본이야말로 肅宗의 御命으로 製作하여 肅宗에게 바친 ‘御覽用’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御覽用의 原本은 어떻게 되었기에, 규장각에는 사진만 남아있다는 말인가? 나는 그 原本이 불타버린 奉先寺藏本일 것이라는 강한 心證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뒷받침해 줄 강력한 證據, 소위 ‘理性的 의심의 여지가 없는 證據’가 있는가?

4. ‘奎章閣本 〈坤輿萬國全圖〉의 原本이 奉先寺本이라는 證據’ 追跡過程

1) 奉先寺 訪問

奉先寺에 〈坤輿萬國全圖〉가 있었다는 것은 金良善선생이나 李燦교수의 글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러면 奉先寺라는 절은 어떤 절인가? 경기도 光陵樹木園 안에 있는 奉先寺는 世祖의 願刹이다. 이처럼 宮과 연고가 깊은 사찰이기 때문에 숙종의 귀중한 〈坤輿萬國全圖〉의 保管處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戰爭 중에

奉先寺는 건물과 遺物을 깎그리 잃었다. 현재의 건물은 모두 다시 지은 것이다.

나는 2010년 여름, 봉선사와 緣故가 있는 고려대학교의 李載昌교수와 함께 봉선사를 訪問하기로 했다. 규장각본 〈곤여만국전도〉 사진 한 장을 携帶하고 말이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8폭 병풍을 네 폭씩 둘로 갈라서, 똑같은 자리에 놓고 따로 찍은 다음 이어 붙였다. 찍은 장소는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의 뒷마루인데, 아마도 〈곤여도〉의 損傷을 막기 위해서, 밑에 멍석 같은 것을 깔고, 그 위에 병풍 네 폭을 세워 놓았다. 병풍 뒤에는 韓式 문의 창살과, 기둥의 柱聯이 보인다. 그 柱聯의 첫 글자는 눈 ‘雪’자가 또렷하다. 사진에는 그 ‘雪’자가 左右에 두 개 있는데, 이는 같은 자리에서 찍은 두 사진을 이어 붙였기 때문이지 그런 柱聯이 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携帶한 寫眞을 奉先寺 月雲스님에게 보였다. 月雲스님은 韓國戰爭 勃發 이전에 스님이 된 분으로 奉先寺住持, 동국대학교譯經院 院長을 歷任한 분이다. 사진을 본 月雲스님은, “내가 중이 된 것은 6·25 이전이나 그때 奉先寺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타기 전의 모습은 모르며, 건물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도 남아있는 것은 없다.”고 確認하면서, “奉先寺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坤輿圖〉는 日帝시대에 總督府의 요청으로 일시 搬出된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진을 보니 그 〈坤輿圖〉는 影幀閣에 보관되어 오다가 반출할 때 그 건물 앞에 세워놓고 찍은 듯하다.”고 말하였다. 즉, 사진은 그 〈坤輿圖〉가 맞는 것 같고, 背景은 影幀閣 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月雲스님의 心證일 뿐 物證은 없었다.

2)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의 〈坤輿萬國全圖〉項의 내용

奉先寺를 다녀온 후에, 나는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에 記載되어 있는 〈坤輿萬國全圖〉項을 다시 檢討해 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湯若望(獨)作] [年紀未詳]/1枚 寧眞版 29×62cm

本文中: 萬曆壬寅(萬曆30年 1602 宣祖35年)/序: 戊子秋九月(1708 肅宗34年)

(奎)25289

여기서 湯若望(獨)作이라고 한 것은 崔錫鼎의 跋文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引用한 것일 뿐, 사실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 내용 중에서 注目할 표현은 사진의 성격을 설명하는 ‘寧眞版’이란 표현이다. ‘寧眞版’ 또는 ‘寧眞’이란 熟語는 辭典에서 찾을 수 없었다.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일까? 출가한 여자가 친정부모를 찾아뵙는 일을 寧親이라고 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寧’은, ‘문안드리다, 찾아뵙다’ 등의 뜻이 있으므로, 寧眞版은 그 被寫體의 保管處를 訪問하여 찍은 寫眞이란 뜻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 寫眞이 정성스럽게 箱子에 따로 보관되고, ‘奎章閣圖書’의 固有番號, (奎)25289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貴重品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 被寫體가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3) 1932년 〈朝鮮古地圖展觀目錄〉

봉선사본 〈坤輿圖〉 즉 〈坤輿萬國全圖〉를 본 일이 있다는 生存人物은 아직 찾지 못했다. 이를 확실히 본 분은 故 金良善先生이고, 이를 高評價하였다. 故 李燦교수도 이를 보지는 못한 듯하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중요한 端緒를 주었다. 그의 大著 〈韓國의 古地圖〉에서, 그는 鄭尙驥의 〈八道圖〉를 이야기하는 중에, 그 〈八道圖〉에 대한 言及이 1932년 京城帝國大學의 〈朝鮮古地圖展觀目錄〉에 나와 있다고 紹介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句節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그런 〈目錄〉이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坤輿萬國全圖〉가 言及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目錄〉을 규장각에서 찾아보았다. 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서울대학교中央圖書館의 古文書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 〈目錄〉은 총 37페이지에 展觀地圖 120점에 대한 간단한 解説을 실었는데, 내가 찾던 〈坤輿萬國全圖〉는 77 및 78번째

에 소개되어 있었다. 그 〈目錄〉가운데서 우리의 關心事項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지:

〈朝鮮古地圖展觀目錄〉

京城帝國大學

昭和七年十月十五日開學式記念

序:

本學開學式을 舉行함에 맞추어 朝鮮古地圖類를 展列하여 널리 江湖에 紹介하게 되었다.

昭和七年十月十五日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長

본문:

七七 坤輿萬國全圖 利瑪竇 奉先寺藏

寫 彩色 一隻 170 x 494 cm

明의 萬曆12年(朝鮮 宣祖17年, 日本 天正12年, 西紀1584年)伊太利人利瑪竇(Matteo Ricci 西紀1552年生) 廣東省肇慶府에서, 西洋從來의 世界地圖와 달리, 中國을 그림의 中央에 位置시키고, 中國語로 翻譯改刻했다. 이것이 곧 坤輿萬國全圖로 되는데, 그後 南京 및 北京에서 再刻을 거듭했다. 京都 및 東北 兩帝國大學所藏의 地圖는 그 第三版인데, 이 地圖에서 보는 것과 같은 珍奇한 動物, 船舶등의 그림이 없고, 처음으로 北京古宮博物館所藏의 坤輿萬國全圖에서는 그 그림이 보인다. 이 地圖는 아마도 이와 같은 種類의 地圖를 模寫하고 崔錫鼎의 序文을 加한 다음, 또 六帖을 八帖으로 바꾼 것임에 틀림없다.

七八 坤輿萬國全圖 利瑪竇 本學藏

寫 彩色 一隻 170 x 533 cm

이 地圖는 前揭奉先寺藏本과 전혀 同一種의 寫本이다. 또는 그 模寫本일까.

이 〈目錄〉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다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1) 七七 奉先寺藏本の 설명은 奎章閣寫眞本の 내용과 완전히 符合한다.
- (2) 七八 本學藏本은 현재의 서울대학교博物館本이다(나는 박물관본이 1928년부터 京城大學藏本으로 된 것을 博物館에서 직접 確認하였다).

- (3) 그 둘이 모두 昭和七年 (1932년) 京城帝國大學 開學式記念展觀에 出品되었다.
 (4) 展觀行事主管은 당시 奎章閣圖書를 관장했던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이었다.

5. 確認 및 整理

나는 以上の 追跡過程으로 ‘奎章閣本<坤輿萬國全圖>의 原本이 奉先寺本이라는 證據’, ‘理性的 의심의 여지가 없는 證據’(evidence beyond reasonable doubt)가 얻어졌다고 본다. 위의 모든 證據를 綜合한 나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整理될 수 있다.

(1)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은 1932년 開學紀念行事的 하나로 朝鮮古地圖展觀行事를 가지기로 방침을 세우고 機關 및 個人 所藏의 古地圖 120점을 蒐集하였다.

(2) <坤輿萬國全圖> 1隻은 1928년부터 이미 京城帝國大學이 所藏하고 있었으나, 毀損이 심했고, 이미 優秀한 品質이 알려져 있던 奉先寺藏本の <坤輿萬國全圖>를 동시에 展示하기를 원했다.

(3) 그러나 奉先寺는 朝鮮王室의 願利이기 때문에, 京城帝國大學은 奉先寺의 搬出許可에, 朝鮮總督府의 도움을 받았다.

(4) 許可를 받은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은, 반출과정에 우수한 寫眞師를 帶同하여, 奉先寺의 影幀閣 앞에서 <坤輿萬國全圖>병풍의 高解像度 寫眞을 撮影하였다.

(5)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은, 그 사진을 ‘奎章閣圖書’의 하나로 分類하여 貴重品으로 영구보존하게 되었다(奎章閣圖書는 이미 1928년과 1930년 사이에 3차에 걸쳐서 同圖書館으로 移管되어 있었다).

(6) 京城帝國大學이 해체되고 모든 資産이 서울대학교로 移管되면서, 이 寫眞 역시 奎章閣圖書의 하나로 移管되었고, 1992년 奎章閣이 도서관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그 寫眞 역시 서울대학교奎章閣으로 移管되었다.

(7) 이미 京城帝國大學이 所藏하고 있던 <坤輿萬國全圖>는 1946년 서울대학교 博物館이 발족하면서, 博物館에 移管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8) 이 사진은 黑白이지만, 奉先寺 原本은 彩色이었다.

논문투고일(2011. 4. 11), 심사일(1차: 2011. 5. 23), 게재확정일(2011. 6. 7)

참고문헌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朝鮮古地圖展觀目錄〉 1932.

金良善, 〈明末清初에 수회선교사제작의 世界地圖〉〈梅山國學散稿〉, 승전대학박물관, 197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李燦, 〈韓國의 古地圖〉 汎友社 1991, 서울.

朱維錚 主編, 〈利瑪竇中文著譯集〉, 復旦大學出版社, 2001, 上海.

黃時鑒 龔纓旻 著, 〈利瑪竇世界地圖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04, 上海.

其他 인터넷 온라인 資料.